특별승급한 25기 막내들 활약 전망

‘괴물’ 임채빈, 특선급 경계대상 1호

데뷔 2회차 200m 랩타임 10초70
슈퍼특선급 강자들과 대결 궁금증
안창진·김민수는 우수급 다크호스

임채빈 안창진 김민수 한탁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경륜 휴장이 길어지고 있지만 선수들은 묵묵히 훈련에 전념하고 있다. 특히 막강한 실력으로 데뷔 무대에서 돌풍을 일으켰던 25기 특별승급 선수 5명은 상위 등급 선배들과 맞붙어 보고 싶은 간절함이 크다.

임채빈(29세·25기·수성·S3)은 당장 특선급 최강자 그룹에 합류할 것이 유력하다. 연일 화제의 중심에 있던 그는 가뿐히 8연승(선행 5회, 젖히기 2회, 추입 1회)하며 특별승급했다. 기록만 보면 이미 슈퍼특선급(SS) 선배들을 능가한다. 데뷔 2회차 첫날 경기였던 1월 26일 200m 랩타임을 10초 70으로 끊으며 경기장을 술렁이게 만들었고, 특별승급을 확정한 2월 9일 결승에서도 10초 79로 우승하며 특선급 경계대상 1호로 떠올랐다.

예상지 경륜박사의 박진수 팀장은 “임채빈이 휴장기를 마치고 얼마나 발전한 모습으로 돌아올지, 특선급 데뷔전에서 어떤 강자와 맞붙을지, 그랑프리 4연패라는 대기록을 달성한 정종진과 언제 붙을지 궁금하다”며 “첫 시합부터 슈퍼특선급 강자와의 대결을 성사시켜 많은 팬들에게 볼거리를 충족시켜줬으면 좋겠다”고 의견을 전했다.

경륜훈련원 졸업순위 6, 7, 17위를 차지한 안창진(30세·25기·수성·A3), 김민수(25세·25기·부산·A3), 한탁희(26세·25기·김포·A3)도 우수급 강자 대열에 합류할 가능성이 높다.

안창진은 묵직한 선행이 트레이드 마크다. 선발급에서 보여준 200m 11초 5 초반대의 선행기록이라면 우수급에서도 선배들의 인정 속에 승수를 챙겨 비선수 출신 스타 탄생을 알릴 것으로 기대된다. 8번 출전해 6회 1착, 2회 2착으로 특별승급한 김민수도 선행 입상이 7회나 될 만큼 지구력에 강점이 있다. 200m 선행 랩타임도 안창진과 비슷한 11초 5대를 자주 기록했다. 한탁희는 안창진, 김민수 보다 훈련원 졸업순위와 기록은 조금 떨어지지만 특선급 최강자들이 즐비한 김포팀 선배들의 도움 속에 성장할 잠재력이 충분하다.

선발급에서는 선행 3회, 젖히기 1회, 추입 3회, 마크 1회를 기록하며 특별승급한 김홍기(27세·25기·김해B·A3)가 빠른 상황 대처의 기교파 강자로 활약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박진수 팀장은 “25기 신인들은 선배들보다 피지컬이 뛰어나고 기록도 우위다”며 “장경구(30세·25기·미원·A1), 김우영(28세·25기·수성·B1) 등 많은 25기들이 빠르면 특별승급, 늦어도 하반기 등급 조정 때 상위 등급으로 올라가 신선한 바람을 일으킬 것”이라고 전망했다.

정용운 기자 sadzoo@donga.com

‘5연승·3회 연속 입상’…4번 모터를 주목하라

모터 기력·선수 궁합 중요한 경정
28·29·71번 모터 인상적인 활약

경정 재개장을 앞두고 경정 선수들과 직원들이 경주정에 모터를 장착하며 점검하고 있다.
사진제공 | 국민체육진흥공단

경정은 모터의 기력이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 상황에 따라 선수의 기량을 그 이상으로 발휘할 수 있게 해주기 때문에 모터 성능에 선수들은 일희일비할 수밖에 없다. 현재 사용하는 모터와 보트는 2018년형이다. 올 시즌 전반기가 끝나면 2020년형으로 교체될 예정이라 앞으로의 출전이 많지 않은 상황이다.

다시 레이스가 진행되면 주목할 효자 모터로는 평균착순점 8점대를 꾸준히 유지하며 최강의 모터 위치를 다투는 11번과 120번 모터가 있다. 최약체급 선수를 순식간에 입상후보로 올려놓을 정도의 성능을 지니고 있다. 1분 50초대의 3바퀴 완주타임 기록을 낸 51번과 150번 모터, 평균착순점 7점대인 17번과 103번 모터 역시 경정 선수라면 누구도 손에 넣기를 원한다. 하지만 이 모터들은 아직 올 시즌에 출전한 적이 없다.

시즌 초반 좋은 성적을 내는 모터들 중에서는 4번 모터가 인상적이다. 지난 시즌 막판 김현덕(36세·11기·B1), 기광서(36세·11기·A2)가 나란히 탑재해 5연승을 기록했다. 1회차 출전에서도 최광성(46세·2기·A2)에게 3연속 입상(우승 2회, 준우승 1회)을 안겨주며 변함없이 좋은 성능을 과시했다.

28번 모터는 평균착순점 5점대 초반으로 평범하지만 시즌 초반 기세가 인상적이다. 1회차에서 정비능력이 탁월한 심상철(38세·7기·A1)이 탑재해 3연승을 거둔 이후, 2회차 송효석(40세·8기·A2), 3회차 전정환(33세·11기·B1)이 총 5회 출전에 우승 2회, 준우승 2회의 성적을 냈다. 심상철 탑승 이후 기력이 한층 좋아졌다는 것을 성적으로 보여준 셈이다.

착순점 10위권 안인 29번 모터도 1회차 3연속 입상을 싹쓸이하며 건재함을 과시하고 있고, 71번 모터도 올 시즌 9회나 출전해 5승으로 기대 이상의 성적을 내고 있다. 75번 모터는 성적은 중하위권이지만 3회차에서 심상철이 이 모터로 3연승을 해 28번 모터처럼 기력 상승의 여지를 배제할 수 없다.

휴장기가 이어져 선수들의 몸 상태나 컨디션 관리뿐만 아니라 모터의 관리상태도 중요하다. 재개장 후 최상위 랭커의 모터들이 출전하지 않으면 모터의 우열을 가리기가 쉽지 않은 만큼, 드러난 성적만 보기보다는 훈련 확정 타임이나 소개항주 타임 등을 분석해 모터의 성능을 파악하는 것이 좋다.

정용운 기자

경륜경정 부정·불법 신고 사이트 개선

국민체육진흥공단 경륜경정총괄본부는 경륜과 경정의 부정·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신고 안내 홈페이지를 개선했다. 부정행위란 경륜·경정 선수와 담합해 승부조작 등을 벌이는 것을 말하며, 불법 행위는 경륜경정법에 명시된 유사 행위로 불법 사이트 등을 온·오프라인에서 개설해 운영하는 것을 말한다. 경륜경정총괄본부는 그동안 부정·불법 행위 신고를 홈페이지에서 일원화해 운영했으나 부정과 불법을 혼동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래서 신고 편의성을 위해 부정, 온라인상 불법, 오프라인상 불법 신고사이트를 3개의 채널로 세분화해 25일부터 운영하고 있다. 부정·불법 경륜경정 행위를 신고하면 최대 1억 원을, 인터넷 사설 경륜경정 사이트를 신고하면 최대 10만 원(건당)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KSPO 여자축구팀, 화천군과 재협약

국민체육진흥공단 경륜경정총괄본부는 KSPO 여자축구팀과 강원도 화천군이 2020년 연고지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KSPO 여자축구팀이 화천군과 연고지 협약을 맺은 것은 2015년 이후 6년째다. KSPO 여자축구팀은 올해도 ‘화천 KSPO’라는 공식 명칭과 엠블렘으로 WK리그 경기에 출전하고 강원도 대표로 전국체전에 나간다. 화천군은 KSPO 여자축구팀이 올해 리그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도록 홈경기장 시설 관리 강화와 전문인력 배치, 리그 진행 제반사항을 지원할 예정이다. KSPO 여자축구팀은 영종도 경정훈련원을 숙소로 사용했으나, 훈련원이 해외입국자 코로나19 임시격리시설로 지정되면서 연고지인 화천으로 이동해 WK리그 개막을 준비하고 있다.

정용운 기자

toto 스포츠토토

W매치 36개 회차 평균 6만4756명 참여

2회차 최다 참여…배당률 1674.3배
28회차는 3만2871명 참여하며 최저

3월 20일 잔여일정에 대한 조기종료를 결정한 국내여자프로농구(WKBL)를 대상으로 2020년에 발행된 W매치 게임에서 평균 6만4756명이 참여한 것으로 집계됐다.

국민체육진흥공단이 발행하는 체육진흥투표권 스포츠토토의 수탁사업자인 ㈜케이토토는 올 한 해 동안 발행된 36개 회차의 W매치 게임을 분석한 결과, 229만5230명이 게임에 참여하며 6만4756명의 평균참여자를 기록하는 등 뜨거운 사랑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고 전했다.

매 시즌 WKBL을 대상으로 전반 및 최종 점수대를 맞히는 방식으로, 상대적으로 이변이 적은 여자농구팬들에게 큰 인기를 얻었던 W매치는 조기 종료를 선택한 이번 시즌에도 많은 인기를 얻었다.

36개 회차 중 가장 많은 참여자 수를 선보인 회차는 1월 2일에 벌어진 하나은행과 신한은행의 맞대결을 대상으로 발매된 2회차로 나타났다. 시즌 중반을 지나 치열한 순위 싸움이 벌어지던 당시 게임에서는 무려 9만1663명의 농구팬이 해당 회차를 구매했으며, 그 중 384명이 적중에 성공하며 1674.3배에 배당률을 기록했다.

당시 홈팀인 하나은행은 신한은행을 안방으로 불러들여, 82-50으로 대승을 거뒀다. 이날 승리로 하나은행은 BNK썸전에 이어 2연승을 거뒀고, 신한은행은 이후 3연패의 부진에 빠지는 계기가 된다. 반면 2월 29일에 발매를 마감한 28회차에서는 3만2871 명이 참가하며 가장 적은 참여자 수를 기록하게 됐다.

올 시즌 5위를 차지한 BNK썸과 1위 우리은행의 경기를 대상으로 한 해당 회차의 경우 1581명이 적중하며 높은 성공률을 보였지만, 많은 사람이 적중에 성공한 만큼 배당률은 67.6배로 적게 나타났다.

특히 해당 회차가 마감된 2월 28일에는, 주말인 토요일을 맞이해 NBA를 대상으로 하는 스페셜N과 농구 승5패 6회차, 배구 매치 31회차, 그리고 프로토 승부식 17회차 등 많은 게임이 몰리며 스포츠팬들의 관심이 분산된 것으로 분석된다.

케이토토 관계자는 “아쉽게도 코로나19의 영향 탓에 시즌이 조기 종료됐지만, 올 한 해에도 W매치를 향해 뜨거운 관심을 보여준 농구팬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한다”고 말했다.

배구스페셜 15개 회차 평균 4114원 소액 참여

국민체육진흥공단이 발행하는 체육진흥투표권 스포츠토토의 수탁사업자인 ㈜케이토토가 2020년에 발행된 ‘배구 스페셜’ 15개 회차를 분석한 결과, 스포츠팬들은 올해에도 꾸준히 소액 참여를 유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국내외 남녀 배구경기의 홈팀 기준 최종 세트스코어와 양 팀의 1세트 점수차를 맞히는 게임 ‘배구 스페셜’ 15개회차에서는 평균 참여 금액이 4114원에 불과했다. 회차 당 평균 참여금액은 1회차가 3729원으로 최저를 기록했고, 4회차는 4514원으로 가장 높게 집계됐다.

적중자는 14회차에서 가장 많았다. 1만6934명이 참여한 가운데, 15개 회차의 평균 적중자 수(334명)의 약 세 배에 달하는 944명이 적중의 기쁨을 맛봤다. 이와 달리 2회차에서는 2만714명이 참여했지만, 단 36명만이 적중에 성공하는 등 어려움을 겪었다. 반대로 배당률은 4242.4배를 기록해 모든 회차 중 가장 높았다. 당시 최하위에 있었던 IBK기업은행이 어나이를 앞세워 6연승을 달리던 선두 현대건설에게 3-0의 셧아웃 승리를 거두는 등 큰 이변이 발생한 것이 적중자 감소의 주요 원인으로 평가됐다.

케이토토 관계자는 “올해 진행된 배구 스페셜 15개 회차를 분석한 결과, 스포츠팬들의 소액참여가 꾸준히 이어졌던 것으로 나타났다”며 “그 동안 건전한 참여로 많은 관심과 사랑을 보여줬던 배구팬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한다”고 전했다.

불법 토토 신고센터 번호는?

케이토토 공식 페이스북 이벤트

퀴즈 풀고 선물도 받는 불법 스포츠도박 근절 캠페인에 동참하세요!

국민체육진흥공단이 발행하는 체육진흥투표권 스포츠토토의 수탁사업자인 ㈜케이토토가 공식 페이스북을 통해 1일 자정까지 불법 스포츠도박 근절 관련 퀴즈를 맞히는 캠페인을 실시한다. 이번 이벤트는 스포츠토토 페이스북 내 페이지를 방문해 출제되는 문제를 확인하고, 이에 맞는 정답을 댓글로 맞히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번 불법 스포츠도박 근절 캠페인에서는 군대 내 스마트폰 허용으로 늘어나는 불법 스포츠도박의 폐해에 대한 내용을 다뤘으며, ‘불법 스포츠토토 신고센터의 전화번호는 무엇일까요?’라는 질문도 함께 주어졌다. 이벤트에 참여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스포츠토토 페이스북 페이지를 방문해 ‘좋아요’를 누르고, 정답을 댓글로 남기면 된다. 이번 이벤트에 참여한 팬들 중 정답을 맞힌 10명에게는 추첨을 통해 떡볶이 세트를 구매할 수 있는 기프티콘을 증정한다.

한편, 이번 이벤트는 2일에 당첨자를 발표할 예정이며, 이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스포츠토토 페이스북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